

## 연행노정 공간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일고\*

— <스토리테마파크>의 스토리를 활용한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을 중심으로 —

신 춘 호\*\*

<目次>

- |                                   |                           |
|-----------------------------------|---------------------------|
| I. 문제제기                           | IV.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br>기획 방안 |
| II. 연행노정 공간의 역사문화콘텐츠<br>요소        | V. 결론을 대신하여               |
| III. <스토리테마파크> 사행스토리<br>개발 현황과 활용 |                           |

### <국문 초록>

본고는 고문헌자료에서 파악한 ‘역사소재’를 활용하여 역사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글이다. 역사공간으로서 燕行路程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연행노정에 투영된 병자호란 관련 기억 양상을 파악하여 이를 역사관광콘텐츠로 기획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은 역사문화콘텐츠로서 옛길의 활용가치가 많은 연행노정과 그 안에 투영된 병자호란의 기억과 소현세자의 볼모노정 등 행적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역사공간에 대한 역사·문화적 지리공간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옛길의 원형을 복원하는 일은 한국 역사지리의 영역을 확장

\* 본고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 학술회의 - 연행의 길, 인문의 길>(2015년 3월 14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 한국의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외래강사 / docu8888@daum.net

하는 일이며, 공간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병자호란 볼모노정의 파악을 위해 소현세자의 심양행적을 기록한 『瀋陽狀啓』, 『瀋陽日記』 등의 문헌과 병자호란 이후의 『燕行錄』을 중심으로 관련내용을 살펴보고, 문헌자료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지역 연행노정과 병자호란 볼모노정의 현장을 답사한 기록사진과 GPS자료(좌표와 트랙)를 활용하여 지리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역사문화콘텐츠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한문 고전(日記類)을 스토리화 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테마파크>의 ‘사행스토리’ 사례를 분석하여 연행노정이 역사문화콘텐츠 창작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대적 개념의 實學이라고도 불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현실이 늘 새로운 콘텐츠 소재의 발굴을 요구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Public Domain Story)’로서 연행노정 콘텐츠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쉽게도 연행문화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인문학적 시각에서 중점 논의 되고 있고, 문화적 활용 측면의 연구나 산업적 활용 사례는 몇 편의 다큐멘터리와 전시를 제외하곤 미미한 형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연행문화, 연행노정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의 기획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燕行路程, 스토리, 병자호란, 昭顯世子, 역사문화콘텐츠

### I. 문제제기

연행노정의 의미와 가치가 크지만 이 노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는 역사공간으로서 燕行路程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글이다. 연행노정 공간의 역사성과 더불어 노정공간에 투영된 병자호란 관련 기억 양상을 파악하여 이를 매개로 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연행노정 공간을 활용한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 기획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병자호란 불모노정은 연행노정 역사의 한 시기와 시공간적으로 겹친다.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의 연행노정은 병자호란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연행노정을 걸었던 많은 사신들이 남긴 연행록을 통해 병자호란의 상처와 悲憤感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가 연행노정의 공간을 주제로 삼고, 그 안에 서린 병자호란 불모노정의 기억 양상을 소주제로 삼아 이 옛길(연행노정)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물론 관광콘텐츠의 형식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연행노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역사성과 그 안에 서려있는 병자호란의 기억이라는 주제를 탐색하는 만큼 역사여행, 역사교훈여행, 역사현장답사여행의 개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길(路程)은 인류역사의 발전과 문화의 생성, 소멸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공간으로서 ‘옛길’은 인류의 문화와 문화가 소통하고 문명이 교류했던 역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로의 의미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는 인식들이 등장하고 있다.<sup>1)</sup> 그중에서도 전통시대 약 600여 년간 국가외교사절이 오갔던 使行路程, 또는 燕行路程과 같은 옛길이 바로 그런 문화유산의 성격 을 가진다고 하겠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연행노정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도 현실이다.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의 행적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성과를 보인 반면,<sup>3)</sup> 연행노정 현장연

1) 신춘호, 「연행노정 영상기록물(사진·동영상)의 콘텐츠화 방안 연구 -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영상아카이브형 전자책’ 출판 제안」, 한국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2-3.  
 2) 본고에서는 使行의 성격이 원대(빈왕), 명대(조천), 청대(연행) 등 각 왕조마다 명칭을 달리했던 점을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이 명·청 교체시기와 청 입관 이후의 ‘燕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燕行路程’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3) 김경미, 「소현세자의 ‘청’ 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김남윤, 「심양일기와 소현세자의 불모살이」, 『규장각』 29, 서울대규장각, 2006.; 「조선여인이 겪은 호란, 이역살이, 환향의

구의 성과는 여전히 미약하고 그마저도 일부 연구자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sup>4)</sup> 이러한 이면에는 연행노정의 공간이 국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현실과 기억 - 소현세자빈 강씨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17호-특집, 역사학연구소, 2009.; 김문식, 「소현세자의 분조와 외교활동」, 『문헌과 해석』 37호, 문헌과해석사, 2006.; 김일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기 - 三學士傳과 三學士碑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6,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3.; 「西北 武人이 기억하는 內子胡亂과 瀋陽 체험 - 『龍灣忠義八壯士傳』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9,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의 병자호란 - 고난을 기억하는 방법」, 『국어국문학』 140호, 국어국문학회, 2005.; 남미혜, 「병자호란기 조선被虜人의 胡地체험과 삶」, 『東洋古典研究』 32집, 동양고전학회, 2008.; 남은경, 「심양일기연구 - 소현세자, 봉림대군의 심양체험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2집, 동양고전학회, 2005.; 「병자호란과 그 후의 기록」, 『심양장계』,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박정애, 『강변 - 새로운 조선을 꿈꾼 여인』, 예담, 2006.; 송미령, 「입관 전 청조의 심양관 통제양상」, 『명칭사연구』 제 30집, 명칭사학회, 2008.; 신춘호, 「소현세자빈 강씨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고 - 광명시 영화원 역사주제공원, 강빈 야판전(姜嬪 野坂田) 조성 제안」, 『인문콘텐츠』 17, 인문콘텐츠학회, 2010.

4) 강양, 「朝鮮前期朝明使行外交와 交通路 - ‘조선 사행록’을 중심으로」, 경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권혁래·신춘호·김재웅·이석현, 「심하전투 서사의 문학지리학적 고찰 - 문학지도와 경관, 서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51권, 우리어문학회, 2015.; 김태준·이승수·김일환,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6.; 소재영외,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도서출판 박이정, 2004.; 신영담(신춘호), 『오래된 기억의 옛 길, 연행노정』, 도서출판 예감, 2006.; 신춘호, 「연행노정 영상기록물(사진·동영상)의 콘텐츠화 방안 연구 -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영상아카이브형 전자책’ 출판 제안」, 한국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燕行路程 영상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 한양(漢陽)~심양(沈陽) 구간 영상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古地圖를 통해 본 義州大路 원형 복원 일고 - 고양~파주구간 영상기록 과정을 중심으로」, 『韓國古地圖研究』 제6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4.; 「17C 역사소설 공간」 전자문화지도 구축 방안 시고, 『글로벌문화콘텐츠』 2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이성형, 「燕行使들의 間文化的 體驗에 대한 認識 樣相 考察 - 壬亂 收拾期 喪葬禮와 文物 認識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3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연행시(燕行詩)에 나타난 “동팔참(東八站) 구간(區間)” 인식양상(認識樣相) 고찰(考察) - 임란(壬亂) 수습기(收拾

있고 북한지역과 중국지역에 대부분 산재하고 있어 상시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역사공간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볼 필요가 있다. 국경의 개념을 벗어나 역사문화적 지리공간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행노정의 연구범위가 문학, 문화콘텐츠, 관광, 역사학 등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연행노정 현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본고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수용태도와 산업적 활용가치 측면에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옛 길에 주목하며, 역사문화콘텐츠로서 옛길의 활용가치가 많은 연행노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특히 본고에서는 연구를 위하여 연행노정과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병자호란 불모노정’을 좀더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이다.

연행노정은 한중관계사의 주요 공간이다. 연행노정은 국가사절이 오갔던 길이었으나, 사행의 기능이 폐지된 지 120여년이 지났다. 이제는 기억으로부터 잊혀진, 어쩌면 역사기록으로만 남은 공간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는 멸실되었거나 변형되었고, 또 일부는 온전하게 원형을 간직한 채 그 자리에 있다. 연행노정의 원형을 복원하는 일은 한국 역사 공간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연행노정 현장 조사와 같은 질적연구 방법론이 필요하

期)를 중심(中心)으로, 『漢文學論集』 제35호, 근역한문학회, 2012.; 이승수, 「조선후기 연행 체험과 고토 인식 - 동팔참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한문학과 다큐멘터리의 접점 가능성 탐색」, 『한국한문학회연구』 제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연행로 중 룡양(遼陽)-안산(鞍山)-광녕(廣寧)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검토」,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09.;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그 안과 밖 - 고려말 대명(對明) 사행(使行)의 요동반도(遼東半島) 경로 고찰」, 『한문학회』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연행로(燕行路)의 문명로적(文明路的) 위상 검토, 그 의의와 한계 - 17세기 초 유몽인(柳夢寅)의 산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4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박제가 삶의 마음속 出路, 燕行의 友情」, 『한양대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자료집: 한중 문화교류와 북경 유리창』, 2011.

고 이는 연행록 문헌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지리 공간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관광(여행)은 역사 공간(현장)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병자호란 불모노정 역사관광콘텐츠의 1차적 목표도 연행노정 속의 병자호란과 그 기억의 역사를 현장에서 추체험하고 교훈을 찾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sup>5)</sup>

병자호란 불모노정은 병자호란(1636~1637년) 당시 淸으로 잡혀간 소현세자, 봉림대군 일행과 60여 만 명의 조선백성들이 포로, 즉 被虜人이 되어 이송된 노정을 말한다.<sup>6)</sup> 병자호란 불모노정의 지리공간은 압록강에서 심양에 이르는 연행노정 지리공간에 포함된다. 크게 보면 심양에서 북경까지의 연행노정 공간까지 확장 된다. 바로 소현세자가 청의 입관당시에 동행했고 북경에서 생활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연행노정 안에서 병자호란의 기억이 드러나는 지점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이는 소현세자의 심양 불모생활 공간과 중국내에서의 행적,<sup>7)</sup> 이후 사행들이 연행노정 공간에서 상기했던 병자호란의 기억 양상들을 조명하여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5) 한중연행노정답사연구회 <http://cafe.daum.net/chinaview> ; 병자호란 불모노정과 소현세자의 행적을 연계하여 중국지역 역사관광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6) 被虜人: 사전적인 의미는 ‘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며, 당시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인들이 청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말한다.

被虜路程: 병자호란의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왕세자인 소현세자와 왕자인 봉림대군 등 왕실, 관료, 관료의 자제 등이 청의 불모가 되었고, 60여 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이 청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이들이 목적지인 심양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을 말한다. 병자호란 피로노정은 의주대로와 연행노정의 노정과 거의 일치한다.

- 본고에서는 전쟁포로의 한자 표현인 ‘피로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포로들이 심양으로 끌려가던 ‘피로노정’은 본고의 내용상 소현세자 일행이 불모가 되어 심양으로 잡혀가던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불모노정’으로 사용한다.

7) 엽행, 중군, 입관의 행적 중에서 연행노정 공간과 관련된 지점들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연구방법은 병자호란 불모노정의 파악을 위해 소현세자의 심양행적을 기록한 『瀋陽狀啓』, 『瀋陽日記』의 내용을 점검할 것이다. 아울러 사신들이 반추하는 병자호란의 기억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병자호란 이후의 『燕行錄』을 중심으로 관련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문헌자료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지역 연행노정과 병자호란 불모노정의 현장을 답사한 기록사진과 GPS자료(좌표와 트랙)를 활용하여 지리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역사문화콘텐츠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고전(日記類)을 스토리화 하고 있는 <스토리테마파크>의 '사행스토리' 사례를 분석하여 연행노정이 역사문화콘텐츠 창작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sup>8)</sup>

연행노정은 전통시대 외교사절이 오간 '고정불변의 길'이었지만,<sup>9)</sup> 오랜 역사가 있고 이 길을 오간 사행의 횟수, 인원, 남겨진 기록의 양이 방대하여 어느 특정한 시기, 사건, 인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만큼 연행노정 공간에 서려있는 역사문화적 요소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다.<sup>10)</sup>

8)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http://story.ugyo.net>)

9) 연행로는 중국의 정치변동과 전쟁 등 사정에 따라 육로와 해로 노정으로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지만, 1679년(숙종 5)에 와서 육로사행노정이 확정된 이후 사행제도가 폐지된 1895년까지 같은 노선을 유지하였다.

10) 고려시기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사행은 약 600여 년간 지속되었던 국가 외교사절이었다. 이 기간에 중국을 오간 사신들의 회수가 1,000여 회를 상회하며, 매사행의 인원이 적게는 200여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렬이었다. 이들 중 사행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식자들은 대부분 정관에 속하는 35명 가량의 대소 관리들이었다. 이들 중 서장관은 어람용 보고서인 연행기록을 남겼던 것으로 파악되며, 별도의 개인 기록을 남긴 이들도 적지 않다. 현존하는 연행록의 수량이 임기중의 연구에 의하면 약 470여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이 연행록들은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정보화를 거쳐 디지털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완료되어 웹, DVD, USB 등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되고 있다. 연구자는 물론 관심자, 콘텐츠생산자들 누구든지 쉬운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제 연행록 속의 술한 사연들이 스토리텔링되고 콘텐츠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게

문화콘텐츠산업의 현실이 늘 새로운 콘텐츠 소재의 발굴을 요구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Public Domain Story)'<sup>11)</sup>로서 연행노정 콘텐츠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sup>12)</sup> 그러나 아쉽게도 연행문화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문학, 역사학 등 일부 학문분과에서 인문학적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고, 문화적 활용 측면의 연구나 활용사례는 몇 편의 다큐멘터리와 전시, 그리고 몇 건의 학술조명 외에는 미미한 형편이다.<sup>13)</sup>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역사관광콘텐츠 활용에 관한 기획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본고가 향후 연행문화, 연행노정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의 기획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 II. 연행노정 공간의 역사문화콘텐츠 요소

### 1. 연행노정의 역사성과 콘텐츠 요소

콘텐츠산업에서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하는 콘텐츠가 대중적, 산업적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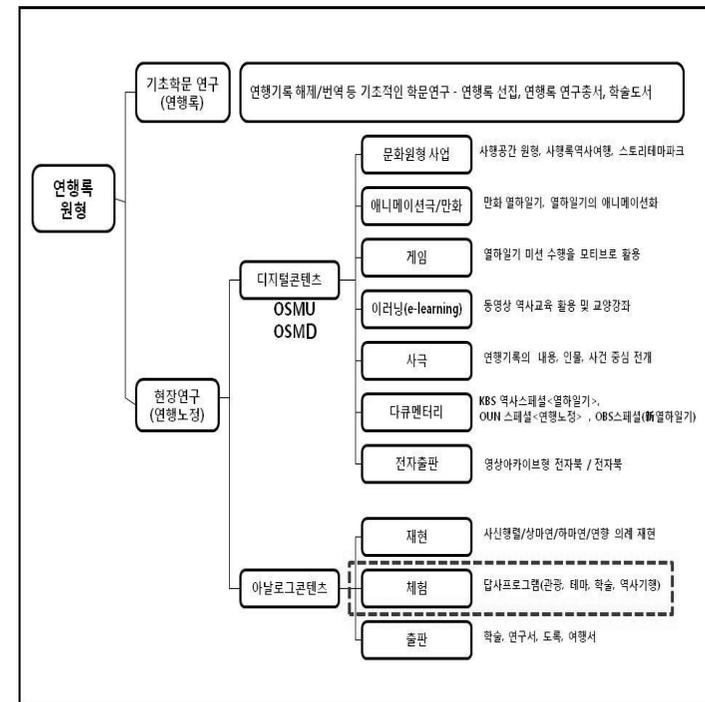
- 11)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문화콘텐츠와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pp.5-6,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Public Domain Story)’는 흔히 민담, 설화, 고전, 문학 등에서 문화콘텐츠요소가 풍부한 것들을 지칭한다. 이들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는 수천 년 수백 년간 인류사회에서 소통해 온 보편성을 가진 이야기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소통되고 향유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구애도 받지 않는다.”
- 12) 사행의 범위를 연행사, 통신사, 대한제국의 외교사절까지 확장하여 살펴본다면, 사행콘텐츠의 확장은 무궁무진하다.
- 13) 신춘호, 앞의 논문, 2009.;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위의 책.; 신춘호, 『燕行路程 영상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 한양(漢陽)~심양(沈陽) 구간 영상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4) ‘연행록’, ‘연행사’, ‘연행노정’ 등 연행문화의 모든 면이 누구나 저작권 구애 없이 활용 가능한 콘텐츠 창작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 성공을 거두면서 콘텐츠 아이템의 선호도에서도 ‘역사’, 또는 문화의 ‘원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콘텐츠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갈증이 심하고, 특히 역사소재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시대와 공간을 넘어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로 창작 가능한 원작, 즉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Public Domain Story)’에 관심이 많은 추세이다. 흔히 민담, 설화, 고전, 문학 등에서 문화콘텐츠 요소가 풍부한 것들을 말하며 이들은 수 천 년에서 수백 년간 인류사회에서 보편성을 가진 이야기들이라는 특징이 있다.<sup>15)</sup> 그런 점에서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燕行’ 역시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의 가장 적합한 대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연행은 한·중 외교관계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여행제도로 국가와 국가를 오가는 국제성이 있고, 한 번 연행할 때마다 적게는 200여명에서 많게는 500명, 1년에 1~4차례씩 북경[연경]으로 향했던 대규모 사절이었다. 청대 사행이 종결된 1895년까지 약 260여 년간 거의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사행이 오갔으니 그 인원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조선의 지식인 지배층은 두루 다녀왔고, 그들은 어김없이 詩文과 여행기록을 남겼다. 한 공간을 수백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오간 일은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일이다. 그 시기를 구한말의 보병사, 영선사, 수신사, 러시아대관식 사절 등으로 확장하면 사연은 더욱 풍부해질 테고, 콘텐츠는 더욱 더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sup>16)</sup> 연행노정과 병자호란의 소재를 활용한 역사관광콘텐츠 역시 연행문화콘텐츠의 파생콘텐츠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15)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앞의 책, p.5.

16) 신춘호, 「燕行路程 영상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 한양(漢陽)~심양(沈陽)구간 영상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5.



【그림 1】 퍼블릭 도메인스토리로서 연행콘텐츠 구조 (신춘호, 2014)

연행노정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신작로 개설, 도로 확장의 결과로 옛길의 원형은 멸실되었거나 훼손되고 말았지만, 연행노정은 우리역사의 고토의식을 재확인하는 공간이었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탐구와 체험의 장이었다. 사행단의 외국체험은 숭한 기록으로 남겨졌다. 연행노정은 우리의 역사, 문화, 사상, 지리공간으로 거듭나는 한국사 역사문화지리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행노정이 갖는 역사성과 콘텐츠 요소를 발굴하여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적극 소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행노정을 활용한 역사문화콘텐츠의 사례는 방송영상콘텐츠 선행콘텐츠가 제작된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인 방송콘텐츠는 다큐멘터리이다.

기 제작된 다큐멘터리의 주요 소재는 연암 박지원의 『熱河日記』 노정을 주제로 한 TV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sup>17)</sup>

사행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역관의 역할과 위상을 다룬 사례, 민영환, 홍순언, 이에, 홍대용을 조명한 사례도 있다.<sup>18)</sup> 그러나 사행

- 17) ① 1998, 방송대학TV <우리시대 고전 이야기> 1편, <열하일기>(60분): 방송대학TV에서는 <우리시대 고전이야기>의 소재로 『열하일기』를 제작하였다. 고전으로서의 『열하일기』를 소개한 내용으로 작자인 연암 박지원과 그의 중국여행기록인 열하일기의 내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 ② 2002, 경기문화재단 <실학> 4편, EBS, 아리랑TV 등에서 재방영: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실학> 영상물을 제작(2003)하여 EBS와 아리랑TV에서 방영하였다. 전체 4편 중 1편이 실학자들의 중국 연행 길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지식인들에게서 실학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그 현장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다.
- ③ 2007, KBS <HD역사스페셜> 2편, <박지원의 열하일기 4000리를 가다>(1·2편): KBS역사스페셜 <박지원의 열하일기 4000리를 가다>(1·2편)(2007)은 연암 박지원이 동북지역을 지나며 느낀 북방의 고토인식(역사의식)과 북경과 열하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일단을 인식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었다.
- ④ 2010, OUN <OUN스페셜> 3편, <열하일기, 길 위의 향연>(1·2·3편), 2010, OUN <OUN스페셜> 1편, <의주대로, 길에서 역사를 묻다>(1편): 이 프로그램은 연행의 현장(노정)을 박지원의 『열하일기』 동선을 추적하였다. 연암이 걸었던 『열하일기』의 전 노정을 꼼꼼히 소개하여 시청자들에게 연행 길을 연암과 동행하는 느낌을 갖게 하고자 했다. 총 3편이 제작되었으며, 1·2편은 압록강-요양-심양-산해관-북경에 이르는 연행노정 동선을 따라 노정의 순서를 자세히 소개하듯 구성하였고, 3편에서는 북경에서 열하까지의 노정을 조명하였다. 기존의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중국지역 연행노정 외에 사행의 출발과 종착지점인 <의주대로>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였다. 국내 연행노정을 조명한 사례로서는 처음이었다.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 공동연출로 참여하였다.
- ⑤ 2012, OBS <OBS창사특집> 3편, <新열하일기>(1·2·3편): <新열하일기>(1·2·3편)(2012)는 <열하일기>의 주요 노정을 되짚어가면서 연암의 실학적 사유에 대한 의미 분석 하였다.
- 18) ① KBS<역사스페셜>(76회): <조선시대 역관은 최고 갑부였다>(2000년 7월 8일); ② KBS<역사스페셜>(184회): <장희빈은 재벌가의 딸이었다>(2002년 11월 23일); ③ KBS<역사스페셜>(200회): <조선특사 민영환, 러시아 황제를 만나다>(2003년 3월 15일); ④ KBS<한국사傳>(1회): <역관 홍순언 -

의 유구한 역사와 횡수, 참여인원의 규모를 상기한다면 콘텐츠의 소재로 너무나 빈약하게 활용된 셈이다. 더욱이 드라마(사극)에서 연행관련 소재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례는 더욱 없다. 연행은 사극의 내용전개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사례들은 많지 않다. 사극열풍을 주도하고 한류의 확산에 기여한 드라마 <대장금><sup>19)</sup>의 경우와 이전의 드라마 <상도><sup>20)</sup>는 연행 장면과 사신들의 활동이 자주 언급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행노정이나 병자호란의 기억을 활용한 전시콘텐츠 사례가 있다. 국내의 연행노정 공간을 영상기록하고 기록사진전을 개최한 신춘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sup>21)</sup>

반면 병자호란의 불모로 심양생활을 했던 소현세자와 강빈의 스토리는 드라마의 시대적배경과 관련인물 구조망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소현세자와 강빈을 소재로 한 방송콘텐츠 제작사례는 몇 편의 드라마 [사극]<sup>22)</sup>와 다큐멘터리<sup>23)</sup>로 구분할 수 있다.

- 인연, 조선의 운명을 바꾸다.>(2007년 6월 16일); ⑤ KBS<한국사傳>(48회): <조선 최초의 전문외교관 - 이에(李藝)>(2010년 10월 23일); ⑥ KBS<한국사傳>(62회): <망원경을 든 선비, 홍대용>(2011년 3월 24일).
- 19) <대장금>은 주인공 徐長今이 폐비 윤씨의 폐위 사건 당시 궁중 암투에 휘말려 부모를 잃고 수라간 궁녀로서 궁궐에 들어가 중종의 주치의인 최초 御醫女가 되기까지의 성공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長今이라는 이름은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중종실록』에 간간히 등장하며, 장금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 20) 드라마 <상도> 홈페이지 (<http://www.imbc.com/tv/drama/sangdo>)
- 21) <오래된 기억의 옛 길, 연행노정> 기록사진전, 혜화갤러리, 전시기간 2007년 6월 2일~6월 6일까지; 이후 실학박물관(2011), 천안박물관(2012), 중국 심양(2014) 등에서 연행노정 기록사진 전시를 진행하였다.
- 22) <대명>(KBS, 1981), <궁중잔혹사 - 꽃들의 전쟁>(JTBC, 2013), <일지매>(SBS, 2008), <최강칠우>(KBS, 2008), <탐나는도다>(MBC, 2009), <추노>(KBS, 2010), <마의>(MBC, 2012).
- 23) KBS<역사스페셜>(59회): <조선왕가 최초의 의문사, 누가 소현세자를 죽였는가?>, 2000년 3월 4일; KBS<한국사傳>(11회): <새로운 조선을 꿈꾸다.>, 2007년 9월 1일. - 소현세자빈 강씨(민회빈)의 삶을 조명한 방송다큐

소현세자와 강빈에 대한 재조명은 출판콘텐츠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소현세자의 경우 청에서 귀국 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의혹과 비운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sup>24)</sup> 강빈의 경우 조선왕실의 여인으로서 해외에 나간 경험 외에도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삶의 행적들은 시대를 앞서간 여성으로서의 면모, 험난한 불모생활을 극복한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고, 아울러 귀국 후 세자의 죽음과 이어진 강빈의 비운을 그리고 있다.<sup>25)</sup>

이처럼 연행은 다양한 콘텐츠 창작의 소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앞서 파악한 선행콘텐츠의 성과 외에 여전히 미개척 소재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는 연행노정이라는 ‘옛길’과 불모노정이라는 역사적 사연을 접목한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연행은 전통시대 외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해외여행이었다. 조선의 관료, 지식인들에게 연행은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오랜 동안 꿈꿔 왔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병자호란과 같은 참상의 결과로 적국의 불모가 되어 외국생활을 했던 특별한 경우

멘터리는 KBS<한국사傳>이 있다. <새로운 조선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으며, 강빈이 소현세자와 더불어 심양 불모생활 중에 보여준 왕실 여인으로서의 강인함과 조선관에서의 생활들을 다루었다. 특히 심양 조선관의 안주인으로서 소현세자를 돕기 위해 청측과의 무역, 포로속환, 농장경영 등 여성 선각자적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서 이후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꿈을 가진 인물로 바라보았다.

- 24) 이수광, 『소현세자 독살 사건』, 산호와 진주, 2011.; 이정근, 『소현세자』, 책으로 보는 세상, 2009.; 박안식, 『소현세자』, 창작과 비평사, 1996.; 이덕일, 『조선 왕 독살사건』, 다산초당, 2005.; 이수광,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 사건』, 다산초당, 2006.; 신동준, 『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 살림, 2007.
- 25) 박정애, 『강빈(새로운 조선을 꿈꾼 여인)』, 예담, 2006.; 김용상, 『별궁의 노래』, 생각의나무, 2009.; 김혜경, 『소현세자빈 강빈』, 문학스케치, 2010.; 김용상, 『민회빈 강씨』, 델론, 2011.; KBS한국사제작팀, 『한국사전2』, 한겨레출판, 2008.

도 있었다. 소현세자와 같은 경우이다.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심양을 비롯한 만주일대에서 청인들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삶도 있었다. 조선의 사신들은 연행노정 곳곳에서 이러한 조선의 유민들의 사연을 들었고, 이를 연행록에 남겼다.

압록강에서 심양으로 가는 사행노정은 옛사람들의 그것처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과 선인들의 행적을 추체험하는 다면적 성격을 가진 공간이다. 관광은 여가와 휴식의 의미도 있지만, 교육과 체험의 의미도 있다. 소현세자와 강빈의 중국 행적은 병자호란의 불모노정에 대한 역사교훈적 요소 외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역사인물로서 조명이 가능한 지점이다. 사신들이 연행노정 공간에서 만난 병자호란의 참상을 기억하고 반추했던 기록들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 2.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의 필요성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의 소재는 ‘길’이다. 연행노정 공간과 중첩된 길을 말한다. 지리적 공간은 압록강~심양구간이며, 이 길은 연행노정과 동일한 노정이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길이므로 병자호란 불모노정이라 부르기로 한다. 길은 찾지 않거나 건지 않으면 이내 사라지게 마련이다. 병자호란 불모노정은 역사적 공간 이외에도 문화, 교육, 체험, 관광적 요소를 두루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치룬 민족이지만, 60여 만 명의 백성이 타국으로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병자호란 불모노정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더구나 병자호란 이후 수많은 연행사신과 조선지식인들은 이 불모노정의 현장을 지나며 병자호란의 기억들을 상기했고, 조선과 청에 대한 새로운 자각들을 했던 공간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병자호란 불모노정과 같은 역사적 길[노정]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소홀하였다. 병자호란 불모노정은 국내

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으로까지 우리역사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역사공간이다. 국내에 남아있는 옛 길의 활용과 개발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인연이 있는 해외의 옛 길에도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옛 길인 병자호란 볼모노정에 대한 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적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금도 ‘옛길’의 흔적이 남아있는 중국 지역 병자호란 볼모노정을 되살려 새로운 역사인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적·산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병자호란 볼모노정은 ‘옛길’이라는 공간적 특징이 많이 남아있고, 그 안에 서려있는 ‘역사 교훈적’ 요소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sup>26)</sup>적 요소’가 매우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역사교훈여행의 목적지로서 관광콘텐츠 기획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공간을 기억하는 방법론으로서 관광콘텐츠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역사공간으로의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엿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길은 역사발전과 함께 인간 삶의 교류를 촉진해온 소통 공간이었다. 교통시설물의 하나라는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길은 지식과 문화의 교류와 기술의 전파통로, 군사 이동로의 역할도 수행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때론 고대 이래로 국가 간 사절의 왕래 등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로가 되기도 함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담아내기도 하였다.<sup>27)</sup>

길은 선(線)이다. 병자호란 볼모노정은 ‘길’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동안 우리가 역사유적과 유물을 대하는 관점이 유물(點)과 유적지(장소, 공간, 面)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점(點)과 점(點)을 잇고, 공간(面)과 공간(面)을

26)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역사적으로 전쟁, 재난 등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기반성과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을 말한다.

27) 조병로, 「역사가 발전하고 삶이 이동하는 공간」, 『문화재사랑』, 문화재청, 2011.

이어주는 매개체인 선, 즉 길(路程)의 개념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28)</sup>. 길의 의미를 인적, 물적, 정신적 문화를 연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선(線)의 개념으로 좀 더 확장해보자는 것이다.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는 길 위에서 만나는 병자호란의 기억들을 추체험하고 상기하는 관광콘텐츠, 여행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점-선-면을 아우르는 볼모노정 공간에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의 아픔과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의 행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sup>29)</sup>

역사교훈적 요소가 풍부하면서도 출발지(한양)와 목적지(심양)를 잇는 선(의주대로와 연행노정=볼모노정)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층위의 역사성을 함께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병자호란 볼모노정이라는 ‘옛길’이 갖고 있는 관광요소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옛길’과 같은 고유 문화적 가치들을 발굴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성을 넓히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유사사례의 발굴과 확대 적용으로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

### 3. 연행노정과 병자호란 볼모노정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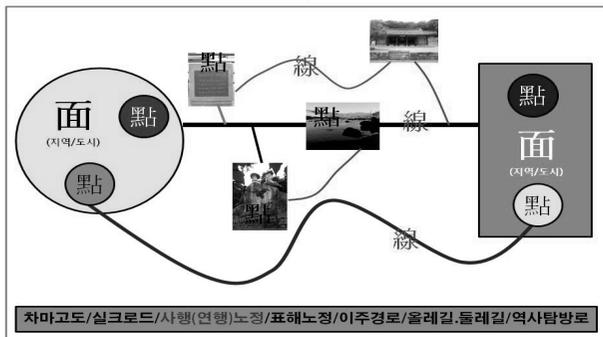
중국지역에 산재한 ‘연행노정’은 소현세자의 볼모노정과 공간적으로 겹친다. 연행사신들의 동선은 『연행록』을 통해, 소현세자 일행의 동선은 『沈陽狀啓』와 『沈陽日記』 등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

28) 길에 대한 『국어사전』에서의 의미는 ‘사람이나 차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비교적 큰 길’ 외에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고 갈 수 있게 된 거의 일정한 너비로 따위에 뻗은 공간적 선형(線形)’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간적 선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인적, 물적, 정신적 문화를 연결하는 선(線)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29) 경남도가 추진하여 개발하고 있는 ‘이순신장군 백의중군로’와 같은 역사문화탐방로는 병자호란 볼모노정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하다. ‘백의중군로’ 역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중에 한 개인이자 국가의 장수인 이순신 장군의 정치적 고난과 시련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는 중국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sup>30)</sup>

조선의 강역인 의주대로(한양-파주-개성-평양-의주)를 지나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다. 구련성-책문-연산관-요양-심양에 이르는 동팔참노정은 조선 사신들의 연행노정이다. 병자호란의 조선인 포로들 역시 이 길을 따라 심양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의주대로, 연행노정, 볼모노정은 단절된 노정이 아닌,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병자호란 이후에 이 길을 오가던 연행사신이나 조선지식인들 역시, 이 길 위에서 병자호란의 참상과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고, 굴욕으로 점철된 조선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추하기도 했다.



[그림 2] 길[線]의 재인식(점-선-면) (신춘호, 2015)

심양으로 향하는 볼모노정은 아래 [표 1]의 『심양일기』 노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들판에서 노숙을 하며 이동하였다. 『심양일기』에는 소현세자 일행이 지났던 경로가 지명으로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 중국 현지의 현재 지명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30) 의주대로는 남한구간(서울-고양-파주-장단)과 북한구간(개성-평양-의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답이 가능한 곳은 남한구간 의주대로이다.

[표 1] 심양장계 / 심양일기 / 열하일기 중국 노정 지명 비교

| 구분    | 심양장계    | 심양일기    | 熱河日記     | 현재지명  | 비고 |
|-------|---------|---------|----------|-------|----|
| 중국 지역 |         | 압록강 어적도 |          | 어적도   |    |
|       | 압록강 삼강  | 승하도     |          | 삼강    |    |
|       | 구련성     | 구련성(노숙) | 구련성(노숙)  | 구련성   |    |
|       |         | 금석산     | 금석산      | 금석    |    |
|       | 탕참      | 탕참(노숙)  | 충수산(노숙)  | 탕산성촌  |    |
|       | 건천      | 건자포(노숙) |          | 건자포   |    |
|       |         | 세포      | 송점(설리참)  |       |    |
|       | 장항      | 장항(노숙)  | 통원보      |       |    |
|       |         | 답동      | 초하구(답동)  | 초하구   |    |
|       | 연산관     | 연산관(노숙) | 연산관(아골관) | 연산관   |    |
|       | 마천령/회령령 | 회령령     | 마운령(회령령) | 마천령   |    |
|       | 침수참     | 침수참(노숙) | 침수참      | 침수만족향 |    |
|       | 냉천      | 냉자령(노숙) | 냉자산      | 냉자산   |    |
|       |         | 고려촌     | 고려총      | 전진촌   |    |
|       |         | 태자하     | 태자하      | 태자하   |    |
|       | 난니포     | 난니관(노숙) | 난니보      | 난니포   |    |
|       |         | 호피역     | 십리하      | 십리하   |    |
| 백탑평   | 백탑평(노숙) | 백탑보     | 백탑보      |       |    |
| 심양강   | 훈후강(동관) | 훈하      | 훈하       |       |    |
| 심양    | 심양(조선관) | 심양      | 심양       |       |    |

중국지역에서 볼모노정, 혹은 연행노정의 대부분은 현재도 국도와 지방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아스팔트이지만, 일부 지역과 산간지역에는 여전히 지금도 옛 길의 흔적들이 남아 있기도 하다. 본 연구자의 답사경험에 의하면, 연행노정 옛 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압록강-구련성-책문-초하구-연산관-청석령-요양-심양 구간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탕산성촌에서 책문으로 향하는 옛 길은 일제가 건설한 철도 옆으로 약 10km 구간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고, 연산관에서 요양까

지의 산악지대에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험준한 산악지역의 길들이 온전히 남아있다.

봉림대군의 「陰雨胡風歌」에 등장하는 청석령 고개 길은 연행기록에서 묘사된 바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남아있다. 청 입관 후, 청석령을 지나는 사신들은 거의 빠짐없이 병자호란의 치욕과 효종[당시 봉림대군]을 추억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래 인용글은 1866년 진하사은겸 주청사 서장관 홍순학이 지은 연행가사의 일부이다.

(前略) 회령령 넘어서니 청석령이 어디 메오. 길바닥 갈린 돌은 툭니같이 일어서고, 좌우에 달린 석벽 창검같이 들렀는데, 이렇듯 험한 곳에 접촉(接足)하기 어려워라. 병자호란적 효종대왕 입심(入瀋)하사, 이 고개 넘으실 때 끼친 곡조 유전하니, “호풍도 차도 찰사 곳은비는 무슨 일고.” 옛일이 새로워 창감키 그지 없다. (後略) - 홍순학의 「연행가」 中<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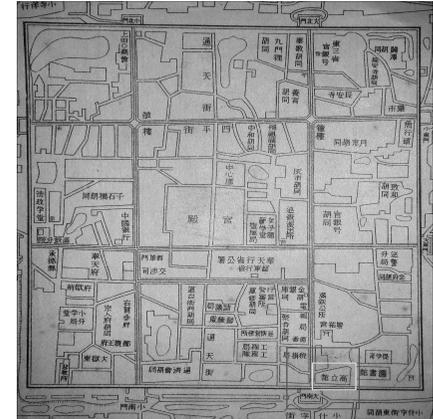
[그림 3] 청석령으로 향하는 길 (○ 부분이 청석령 정상부)

병자호란 불모노정에서 심양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전란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 오랑캐의 땅으로 끌려간 노정이 불모노정이다. 피로노정에 나선 이들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왕세자 일행과 관료, 자제들이 불모로 잡혀가기도 했다. 이들의 행적이 일반 백성들과 다르지는 않지만, 병자호란의 불모노정에서 소현세자와 강빈. 그

31) 홍중선·백순철, 『연행가』, 신구문화사, 2005, p.157.

리고 봉림대군 등의 행적은 중요하다. 소현세자와 강빈, 봉림대군, 재신, 붙잡혀온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참담함은 심양 조선관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심양 조선관의 정치적 입장과 소현세자의 고군분투, 조선인들의 생활, 김상헌과 최명길 등의 심양 투옥사건, 전쟁물자 조달에 대한 청의 압박, 노예시장과 속환문제, 환향녀 문제, 소현세자빈 강씨의 농장경영, 심양조선관의 무역활동,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종군, 인질의 교체 문제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청의 압박과 심양조선관의 제 문제들은 전쟁 패전국이자 약소국이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림 4] 1924년 대남문 고립관(조선관자리)

심양 불모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조선관’은 대남문 안쪽의 동쪽 골목에 있는 하버드유치원 일대를 말한다.<sup>32)</sup> 본 연구자 역시 1924년 무렵 제작된 심양지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일대에 고립관이라는 지명이

32) 洪忠党, 「老沈陽“高麗館”的歷史眞實與遺址尋踪」, 2008年 7月 4日 일자.

(<http://blog.sina.com.cn/hongzhongdang>); “在老沈陽, 有一段被稱爲‘高麗館’的歷史故事, 流傳很廣, 而高麗館的歷史眞實和遺迹究竟何處, 尚有多種說法. 本文嚴格考證歷史資料, 結合實際調查, 將歷史的眞實還原, 並將史迹尋踪的結果娓娓道來. … 筆者曾多次專程到此地尋訪, 深感高麗館所處地點是清朝精心安排的: 處盛京古方城之內而又偏卑一隅, 位居大南門城樓之下東側, 置于城牆上巡邏清兵的視線之內并他們的行踪極易受控于清廷, 且沈陽皇宮與高麗館的位置的直線無限延長可直達朝鮮國都, 似乎都是精心設計與安排的, 不能不說是用心良苦寓意深長. 至此, 高麗館遺址確切位置已無可爭議 塵埃落定.”

보이고 있어 그 위치의 신빙성을 갖게 한다. 이는 병자호란 불모노정 관광콘텐츠 개발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다.

아래 [표 2]에서는 연행노정 공간과 불모노정의 공간에서 살펴볼만한 관련유적과 옛 공간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각 장소마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거나 멸실된 경우들은 현전유무상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된 공간들은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에서 답사일정과 이동경로 등 동선 계획을 수립하거나, 답사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역사성과 가치를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표 2] 병자호란 불모노정 (압록강-심양구간)

| 구분              | 장소  | 관련내용             | 관련 유적  |    | 비고 |          |
|-----------------|-----|------------------|--|----|----|----------|
| 중국 지역<br>(연행노정) | 압록강 | 나루터              | 사신들의 도강  | 현존 | 舊址 | 위치<br>多  |
|                 | 상침촌 | 아관               | 압록강 도강 후 첫 숙박(숙영)공간                              | 비정 |    | 별판       |
|                 | 구련성 | 구련성촌             | 옛 성터의 흔적이 거의 없음                                  | 지명 | 마을 | 표석       |
|                 | 탕산성 | 탕산성              | 대규모로 야영했던 개울, 옛길                                 | 현존 | 옛길 | 성터       |
|                 | 변문  | 책문               | 조청간의 실질적인 국경                                     | 지명 | 마을 |          |
|                 | 봉성시 | 봉황산              | 고구려 오폭산성 터                                       | 현존 | 성벽 | 성벽<br>일부 |
|                 |     | 봉성시              | 소현세자강빈과 왕세손 만남 장소                                | 비정 | 아문 |          |
|                 | 설리참 | 설리참              | 설인귀-유인원장군 지휘부 수당과 고구려전쟁의 현장 군사 숙영지 (병자호란 / 한국전쟁) | 지명 | 마을 | 공간<br>일부 |
|                 | 초하구 | 초하구              | 봉림대군(효종의 '음우호풍가' 지명)                             | 지명 |    |          |
|                 | 청석령 | 청석령              | 봉림대군(효종의 '음우호풍가' 지명 사신들의 고난의 연행 공간(마천령))         | 현존 | 고개 |          |
|                 | 요양  | 요양백담             | 연행의 장관, 유람처                                      | 현존 |    |          |
|                 |     | 관계묘              | 연행의 장관, 유람처                                      | 현존 | 개축 |          |
| 심양              | 혼하  | 심양성으로 들어가던 혼하 나루 | 비정   |    |    |          |

| 구분              | 장소   | 관련내용                      | 관련 유적 |    | 비고       |
|-----------------|------|---------------------------|-------|----|----------|
| 중국 지역<br>(연행노정) | 조선관  | 대청 조선대표부 역할 당시 조선관 터 발굴   | 비정    | 터  | 장소<br>비정 |
|                 | 고궁   | 입관친 청의 황제의 거소             | 현존    | 고궁 |          |
|                 | 실승사  | 황제의 원당 중군 제례의식에 왕세자 일행 참여 | 현존    | 사찰 |          |
|                 | 남탑일대 | 조선포로들의 노예시장 장소            | 비정    | 남탑 | 공원       |
|                 | 아관전1 | 조선관의 물자 자급자족              | 비정    | 농장 | 농장터      |
|                 | 아관전2 | 벼농사의 보급과 국제무역             | 비정    | 농장 | 농장터      |

심양 조선관에서 생활하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심양 불모생활 중에 수시로 청의 황제를 따라 명·청 전쟁에 종군하기도 하였다. 아래 [표 3]은 그들이 종군했던 전쟁지역과 청의 입관 후 북경에서 잠시 머물던 시기의 행적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 보이는 공간 역시 연행노정의 공간 위에 위치한다.

[표 3] 병자호란 불모노정 (심양-중군지역-북경)

| 구분              | 장소  | 관련내용 | 관련 유적                             |    | 비고 |
|-----------------|-----|------|-----------------------------------|----|----|
| 중국 지역<br>(연행노정) | 영안교 | 심양   | 영안교 완공식 참여                        | 현존 | 교량 |
|                 | 금주  | 금주   | 금주송산전역 종군                         | 현존 | 성터 |
|                 | 송산  | 연대   |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종군 옛 봉화대와 너른 평야, 전쟁비석 | 현존 | 연대 |
|                 | 산해관 | 만리장성 | 명청 교체의 상징, 장성의 무너짐                | 현존 | 장성 |
|                 | 북경  | 자금성  | 청의 중원 제패 상징                       | 현존 | 고궁 |
|                 |     | 문연각  | 문화전 일대 소현세자 거처지                   | 현존 | 고궁 |
|                 |     | 천주당  | 서양 선교사 아담 샬 교류, 남천주당              | 현존 |    |
|                 |     | 무영전  | 자금성내 구왕 다이곤의 집무 공간                | 현존 | 고궁 |

심양 조선관에서 무시로 청의 요구에 따라 명·청전쟁의 현장에 종군

했던 소현세자는 1644년 산해관을 열고 북경까지 진군하는 청의 군대를 따라 자금성까지 들어갔다. 조선이 그토록 의지하던 명의 몰락을 직접 목도한 것이다. 북경에는 소현세자가 머물고 아담 살과 교류했던 공간들이 남아 있다.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 개발의 범위를 북경노정까지 확대할 경우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공간이다.

문화산업시대는 콘텐츠 소재의 발굴과 참신한 기획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고전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 창작스토리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토리테마파크>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스토리테마파크>가 개발 중인 사행스토리의 내용과 병자호란 관련 스토리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연행노정 역사문화콘텐츠, 그리고 제4장에서 제기하는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에 접목이 가능한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스토리테마파크> 사행스토리 개발 현황과 활용

#### 1. <스토리테마파크>의 구성과 스토리 개발

한국국학진흥원은 선인들의 생활기록, 문집, 일기류 등 고전을 발굴, 국역,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sup>33)</sup> 대표적인 성과가 <유산기>, <사행록 역사여행>, <스토리테마파크> 등이며, 이러한 고전의 현대적 해설과 수용에 관한 사업들을 통해 일정부분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스토리테마파크>는 창작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고전의 재해석’, 즉 ‘고전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스토리테마파크>에는 역사문화원형인 조선시대 ‘일기류’를 국역하

33) 일기류인 사행기록, 연행록 뿐 만 아니라 생활일기, 전쟁일기 등에서 발굴되는 이야기거리들은 모두 콘텐츠 소재로 개발되고 있다.

고 스토리 소재로 개발한 소스가 크게 네 개의 섹션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테마스토리>, <인물캐릭터>, <배경이야기>, <멀티미디어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sup>34)</sup> 이들은 각각의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있는데, <테마스토리>는 10여개의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현재 약 2,448건의 스토리가 개발되어 있다.<sup>35)</sup> <인물캐릭터>는 11개 카테고리에 808건의 스토리,<sup>36)</sup> <배경이야기>에는 8개의 카테고리 와 2,392건의 스토리가 개발되었다.<sup>37)</sup> <멀티미디어소재>는 내용유형<sup>38)</sup>과 미디어유형<sup>39)</sup>으로 구분

34) 스토리테마파크 (<http://story.ugyo.net/front/introduction.do>) 네 가지 구성 요소.

①테마스토리: 스토리테마파크에서는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를 사건 중심의 이야기 소재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건을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역사적 사실정보에 대한 세밀한 묘사 내용과 여러 모티브가 제공된다.

②인물캐릭터: 스토리 속에는 갈등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캐릭터가 존재한다. 신분별, 지역별로 분류되어 서비스하고 있다.

③배경이야기: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전개상황 및 이야기 소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배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멀티미디어: 텍스트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 정보(이미지, 그래픽, 3D, 2D애니메이션)를 제공하고 있다.

35) ①가족, 영원한 동반자(146건), ②갈등과 대립의 기록(291건), ③만남의 나날들(212건), ④머나먼 등용문(80건), ⑤복적복적 공동체생활(658건), ⑥사행, 타국을 걷는 길(224건; 11건은사행무관), ⑦전쟁, 혼란의 기록(232건), ⑧특별한 신분의 삶(82건), ⑨풍류, 여행의 기술(430건), ⑩피땀 어린 돈과 땅(93건)

36) 본고에서 파악한 스토리개발 수치는 2015년 2월 21일 조사(1차)후, 2015년 12월 10일 재조사(2차)한 내용임. ①무인 장수(26건), ②양반(383건), ③여성(40건), ④왕실(47건), ⑤외국관리(23건), ⑥외국장수(23건), ⑦중앙관리(92건), ⑧중인 상민(42건), ⑨지관 무속(6건), ⑩지방관리(54건), ⑪천민 승려(72건)

37) ①경제와 의식주(144건), ②교육과 과거(144건), ③군사제도와 병역(37건), ④문화와 의례(718건), ⑤사회생활과 신분(233건), ⑥외교와 전쟁(424건), ⑦인물과 업적(139건), ⑧정치와 행정(553건)

38) 내용의 유형은 크게 공간·사건·소품·인물·절차·참고 등 6가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39) 미디어 유형은 3D·그래픽·애니메이션(12건)·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니메이션 유형에서 사행관련 내용은 ‘동지사의 사행’으로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된다.

<스토리테마파크>의 스토리는 안동과 경상도 일대의 사대부가에 家藏되어 온 일기類가 주로 이야기소재로 발굴되었는데, 생활일기, 전쟁일기, 관직일기, 사행일기 등 다양하게 발굴, 국역되고 있다. 이를 콘텐츠 창작자나 연구자, 관련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sup>40)</sup>

각각의 테마스토리 소재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크게 소재의 개요와 세 가지 정보로 요약된다. 먼저 ‘개요’는 소재의 원천소스에 대한 기본정보로서 일기의 형식적 분류, 출전, 시기, 주제, 장소, 주요인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세 가지 정보’는 각 소재를 해설하는 <이야기소재>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정보, 즉 역사적 시간과 인물, 사건, 공간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배경이야기>, 그리고 소재의 <출전 원문>이다. 이들 세 가지 정보들은 이야기소재의 개략적인 맥락을 이해하거나 콘텐츠 개발 시 아이디어 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

사행스토리소재 항목은 <사행, 타국을 걷는 길>이라는 대주제 아래 다시 약 6개의 중주제로 분류하였는데, <감상과 향수>, <만남과 대화>, <문물의 견학>, <사건과 사고>, <사행의 여정>, <사행의 의무>이다. 전체 6개의 중주제는 각 주제별로 부합되는 소재들을 적게는 26건에서 많게는 75건으로 다시 분류하여 총 224건의 테마스토리 소재를 개발하였다.<sup>41)</sup>

이들 대주제 내 세부소재들은 각각의 대주제와 중주제안에 산재한 유

40) 스토리테마파크 사이트소개에 따르면 기획의도를, “스토리테마파크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의 하나로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일기’ 자료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생활사적 요소들을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41) 1차 조사 당시 총 155건의 ‘테마스토리’가 개발되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224건으로 개발된 스토리 항목이 늘었다.

관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이야기소재’ 항목으로 링크되어 있어 유용하다. 예를 들면, 테마스토리 대주제인 <사행, 타국을 걷는 길>에서 중주제인 <사행의 여정>을 클릭하면 75건의 개별 스토리가 검색된다. 그중 하나인 54번 <소현세자, 원손을 청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며 마음 아파하다> 스토리항목을 검색하면,<sup>42)</sup> ‘개요-이야기소재-관련이야기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이야기소재는 9개의 관련 스토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야기소재는 배경이야기와 내용의 원문을 통해 검색 가능하다. 개요 역시 『조선왕조실록』의 관련기사<sup>43)</sup>로 링크되어 서비스됨으로써 원전을 파악할 수 있다.

테마스토리 <사행, 타국을 걷는 길>이 사행 아이템을 중심으로 개발한 스토리이지만, 여타 테마스토리의 대주제 안에서도 일부 사행과 연관된 소재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행스토리외 병자호란(소현세자 관련 포함) 항목을 찾아보면, <갈등과 대립의 기록-외교상 갈등>(28件), <전쟁, 혼란의 기록-전쟁과 외교>(6件, 明과 倭와의 관계 19件), <특별한 신분의 삶-왕족의 생활>(6件-소현세자 관련), <피땀 어린 돈과 땀>(1件) 등 관련 스토리가 개발되어 있다. 이는 테마스토리외 인물캐릭터, 관련이야기 등 각 카테고리가 단절형이 아닌 유기적 연계를 맺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창작자들이 콘텐츠 소재를 발굴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예를 들어 테마스토리 <전쟁, 혼란의 기록> 항목의 중주제인 <전쟁과 외교> 분야로 들어가 세부소재인 <청과 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자호란에 맞서는 원칙주의 성리학자 김상헌의 강한 주장> 항목(4번)을 클릭하면 소재의 개요와 이야기소재,

42) <소현세자, 원손을 청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며 마음 아파하다> 스토리항목 ([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KSH\\_1167&chkAttrCode=0605](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KSH_1167&chkAttrCode=0605))

43) 『조선왕조실록』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명 승정(崇禎) 17년) 7월 16일(신축)> 관련기사로 연결됨.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kpa\\_12207016\\_001](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kpa_12207016_001))

배경이야기, 원문정보가 나오며, 하단에 ‘관련이야기소재’ 항목에서 8개의 세부소재가 취합되어 있어서 기 개발된 스토리와 연동하여 감상현과 관련된 스토리개발 항목의 목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sup>44)</sup> 이러한 연계구조는 스토리의 배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 원전[출전]의 관련기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 혹은 창작자들이 스토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창작물의 컨셉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근래 방송 사극이나 역사영화는 물론 퓨전역사물에서 심심찮게 제기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테마스토리 내 사행관련 항목인 <사행, 타국을 걷는 길>을 통해 사행스토리 개발의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병자호란 관련 소재의 스토리는 어떤 소재가 개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행노정 스토리 개발과 병자호란 소재의 활용

테마스토리 내 <사행, 타국을 걷는 길>은 총 6개 소재의 세부내용이 있다. 각각의 스토리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는 <감상과 향수> 관련 소재이다. 26건의 소재를 개발하였다. 스토리 개발의 원전 연행록은 이해웅의 『蕪山記程』(1803) 외 5種이다. 둘째는 <만남과 대화> 관련 소재이다. 원전자료는 소현세자의 세자시강원에서 작성한 『瀋陽日記』(1644) 외 11種이다. 전체 39건의 스토리 중 2건은 김대락의 『白河日記』(1911)에서 추출한 것으로 사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37건이 사행스토리가 되는 셈이다. 셋째는 <문물의 견학> 관련 소재이다.<sup>45)</sup> <스

44) <전쟁, 혼란의 기록>.<전쟁과 외교> 4번 항목

([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KSH\\_0016](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KSH_0016))

45) 사행의 일차적인 목적이 황제와 중국정부에 외교문서를 주고받는 업무가 주된 일이었지만, 사행은 조선이 세계를 바라보는 창(窓)의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중국 사행 길은 조선 땅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체험하는 견문의 기회였음을 상기해 볼 때 ‘문물의 견학’을 소재로 삼을 수

토리테마파크>에서는 총 28건 중 26건이 사행스토리이다.<sup>46)</sup> 배삼익의 『朝天錄』(1584) 외 4종이 원전자료로 활용되었다. 넷째는 <사건과 사고> 관련 소재이다. 전체 28건 중 25건이 사행스토리이며 3건은 김대락(1911) 관련 스토리이다. 조익, 『황화일기』(1599) 외 9종의 원전자료를 활용하여 스토리 개발을 하였다. 다섯째는 <사행의 여정> 관련 소재이다. 총 71건이 사행스토리로 개발되었다.<sup>47)</sup> 이기현의 『燕行日記啓本』(1801) 외 7종을 중심으로 소재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사행의 의무> 관련 소재이다. 전체 28건의 소재를 개발하였다. 박세당의 『西溪燕錄』(1669) 외 9종의 연행록을 배경으로 개발하였다.

<스토리테마파크>에서 현재 사행스토리 개발의 원전으로 활용중인 사행기록물은 14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학계에 보고된 연행록이 수가 500여종이 넘고, 이미 국역이 되었거나 진행 중인 문헌도 많기 때문에 향후 사행스토리 개발의 가능성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여겨진다.<sup>48)</sup> <사행, 타국을 걷는 길>에서 원전인 연행록을 활용하여 스토리를 개발한 항목과 해당 원전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9)</sup>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 할 것으로 판단된다.

46) 스토리 중 2건은 김대락의 『白河日記』(1911)이므로 사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47) 전체 75건의 소재 중 김대락(1911) 소재 4건을 뺀 71건이다.

48) 본고에서는 사행스토리의 경우 연행록만을 대상으로 구분하였지만, 일반 생활문화, 일기류를 모두 활용하여 스토리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원전자료의 수는 매우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 그러나 국학진흥원이 소재한 안동과 경상도 일대에서 발굴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스토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토리테마파크가 갖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향후 스토리 개발 원전자료를 지역에서 발굴하는 문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 개발된다면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소재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49) 전체 224건이지만 11건은 1900년대 초 안동 김대락의 중국망명과 석주 이상룡 일가의 중국 이주 관련 소재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213건이 사행관련 스토리로 개발된 상태임.

[표 4] 스토리테마파크 <사행, 타국을 걷는 길> 개발 현황

| 연번 | 스토리 소재 | 개발 총량              | 배경 원전사료   |
|----|--------|--------------------|---|
| 1  | 감상과 향수 | 26件                | 『薊山記程』(이해응/1803), 『황화일기』(조익/1599), 『朝天日記』(이상길/1617), 『燕行日記』(성이성/1645), 『西溪燕錄』(박세당/1669), 『燕行日記啓本』(이기현/1801)   |
| 2  | 만남과 대화 | 39件<br>(-2 :사행 무관) | 『瀋陽日記』(세자시강원/1644), 『西溪燕錄』(박세당/1669), 『朝天錄』(권벌/1539), 『황화일기』(조익/1599), 『燕行日記啓本』(이기현/1801), 『壬寅飲水錄』(정태화/1662), 『淸臺日記』(권상일/1734), 『燕行雜誌』(이이명/1720), 『朝天日記』(홍호/1632), 『朝天日記』(이상길/1617), 『赴瀋日記』(이경업/1641), 『癸卯燕行錄』(황정/1723)<br>* 『白河日記』(김대락/1911) |
| 3  | 문물의 견학 | 28件<br>(-2 :사행 무관) | 『朝天錄』(배삼익/1584), 『朝天錄』(권벌/1539), 『薊山記程』(이해응/1803), 『황화일기』(조익/1599), 『癸卯燕行錄』(황정/1723)<br>* 『白河日記』(김대락/1911)  |
| 4  | 사건과 사고 | 28件<br>(-3 :사행 무관) | 『朝天錄』(배삼익/1584), 『薊山記程』(이해응/1803), 『瀋陽日記』(세자시강원/1644), 『황화일기』(조익/1599), 『朝天日記』(홍호/1632), 『朝天日記』(이상길/1617), 『赴瀋日記』(이경업/1641), 『燕行日記啓本』(이기현/1801), 『癸卯燕行錄』(황정/1723), 『孤臺日錄』(정경순/1618)<br>* 『白河日記』(김대락/1911)                                     |
| 5  | 사행의 여정 | 75件<br>(-4 :사행 무관) | 『燕行日記啓本』(이기현/1801), 『瀋陽日記』(세자시강원/1644), 『朝天錄』(배삼익/1584), 『西溪燕錄』(박세당/1669), 『薊山記程』(이해응/1803), 『朝天錄』(권벌/1539), 『황화일기』(조익/1599), 『壬寅飲水錄』(정태화/1662)<br>* 『白河日記』(김대락/1911)   |
| 6  | 사행의 의무 | 28件                | 『朝天錄』(배삼익/1584), 『西溪燕錄』(박세당/1669), 『薊山記程』(이해응/1803), 『朝天錄』(권벌/1539), 『황화일기』(조익/1599), 『朝天日記』(홍호/1632), 『朝天日記』(이상길/1617), 『赴瀋日記』(이경업/1641), 『燕行日記啓本』(이기현/1801), 『使行錄』(전식/1625)   |
|    | 계      | 224件               | * -11건 『白河日記』(김대락/1911) 관련 스토리  |

<스토리테마파크>의 사행스토리에는 병자호란관련 스토리도 일부

개발되고 있다. 특히 <만남과 대화>, <사건과 사고>, <사행의 여정> 항목에서 병자호란 이후 불모 생활을 했던 소현세자의 심양 행적에 관한 내용들이 스토리로 개발된 사례가 많았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스토리개발의 원전은 소현세자 세자시강원의 『瀋陽日記』가 대표적이지만, 당시 심양에 사신으로 갔던 인물의 기록과 이후의 사행기록 등 8종의 사행기록에서도 스토리 소재를 발굴하여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사행스토리 내에 병자호란 관련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스토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병자호란 이후(1637년~1895년 사행 종결까지) 심양과 북경을 오간 사행들의 기록에는 어김없이 병자호란의 기억과 울분을 토로하는 소회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 많은 연행록의 활용여부에 따라 병자호란 관련스토리의 개발 건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는 병자호란 관련 스토리개발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스토리테마파크>의 '병자호란 스토리' 개발 현황

| 사행일기                          | 작자    | 년도      | 스토리 개발 현황 |                        |
|-------------------------------|-------|---------|-----------|------------------------|
|                               |       |         | 사행스토리     | 병자호란스토리 <sup>50)</sup> |
| 부심일기<br>(赴瀋日記)                | 이경업   | 1641    | 12件       | 12件                    |
| 심양일기 <sup>51)</sup><br>(瀋陽日記) | 세자시강원 | 1637~44 | 22件       | 22件                    |
| 연행일기<br>(燕行日記)                | 성이성   | 1645    | 14件       | 4件                     |

50) 사행스토리 개발과정에서 병자호란의 기억을 직간접적으로 되살리게 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개발한 것을 말하며, 현재 50여건의 병자호란 관련 스토리가 개발된 상태이다. 명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괄하는 이야기소재도 더러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51) 『심양일기』는 소현세자의 병자호란 이후 심양 불모 생활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므로, 스토리 개발 역시 병자호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 사행일기                          | 작자  | 년도   | 스토리 개발 현황 |         |
|-------------------------------|-----|------|-----------|---------|
|                               |     |      | 사행스토리     | 병자호란스토리 |
| 임인음빙록<br>(壬寅飲氷錄)              | 정태화 | 1662 | 6件        | 2件      |
| 서계연록<br>(西溪燕錄)                | 박세당 | 1669 | 13件       | 3件      |
| 연행잡지<br>(燕行雜誌)                | 이이명 | 1720 | 6件        | 1件      |
| 계묘연행록<br>(癸卯燕行錄)              | 황정  | 1723 | 7件        | 1件      |
| 청대일기 <sup>52)</sup><br>(淸臺日記) | 권상일 | 1734 | 1件        |         |
| 연행일기계본<br>(燕行日記啓本)            | 이기현 | 1801 | 7件        | 1件      |
| 계산기정<br>(蔚山記程)                | 이해응 | 1803 | 65件       | 4件      |

근래 연행록 연구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를 활용한 연행문화콘텐츠 개발이나 콘텐츠 창작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미미하지만, 문화콘텐츠산업이 새로운 창작소재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추세이고, 무궁한 콘텐츠 소재의 보고라는 점에서 연행문화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이 촉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sup>53)</sup> 그런 점에서 역사문화콘텐츠 창작의 스토리를 개발하는 <스토리테마파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 스

52) 『청대일기』는 사행기록은 아니나 <사행, 타국을 걷는 길>(만남과 대화)의 소재로 개발된 1건, <청국인이 조선에 표류하다>가 있음.

53) 현재, <스토리테마파크>의 스토리소재는 방송, 출판, 학술연구 분야에서 인용, 또는 활용 사례가 보이기 시작한다. 방송콘텐츠 활용사례는 <KBS 1TV-특집다큐 ‘안동양반의 사생활 - 조성당일기’>(2012. 11. 30. 방영), <안동KBS [뉴스 91 내 고장 역사 나들이]> 등이 있다.

학술연구는 최희수의 논문으로 『Construction Plan of Digital Map for Story Theme Park - Based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Story Mate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media and Ubiquitous Engineering』 Vol.9, No.3, 2014. 스토리테마파크에 구축된 이야기 소재의 시공간의 배경 정보에 기반을 둔 전자지도(Digital Map)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출판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기술(KEPCO) 사보』 2013년 1월호~2014년 6월호. 연재중이다.

토리 소재를 활용하는 관련 연구자, 제작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스토리테마파크>의 활용과 지향

<스토리테마파크>가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및 창작의 스토리창고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sup>54)</sup>

첫째, 원천자료의 확보가 시급하다.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향후 콘텐츠 창작 소재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들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스토리테마파크 구축사업에서 원천자료로 사용되는 문헌군은 대부분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권역의 家藏本 원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국의 문헌군으로 확대 수집 혹은 기존의 장서를 연계하여 스토리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 관련 문헌의 국역자료들을 연계하고 공동 활용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국가 주요 국학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 중인 <한국학종합DB 구축사업>은 좋은 사례로 삼을 만하다.<sup>55)</sup>

둘째, 영상이미지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스토리테마파크>에서는 멀티미디어자료를 제공하여 창작자들의 아이디어 개발을 돕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유형은 내용유형과 미디어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내용유형은 관련자료 중심이다.<sup>56)</sup> 미디어유형은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sup>57)</sup> 일부 영상이미지가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되고

54) 신춘호, 「燕行路程 영상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한양(漢陽)~심양(沈陽)구간 영상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p.211-213.

55)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참여.

56) 공간자료, 사건자료, 소품자료, 인물자료, 절차자료, 참고자료 등이다. 이러한 자료는 미디어의 형식에 맞춰 제공되고 있다.

57) 이미지는 사진자료(기록사진, VR, PVR)와 동영상자료인데 <스토리테마파

있지 않은 점은 검수과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sup>58)</sup>

셋째, 스토리와 원천자료에 대한 저작권 측면의 개방 확장이 필요하다. 스토리창작자, 제작자들이 원활하고 수월하게 활용 가능하여 창작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저작권 측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sup>59)</sup>

넷째, <사행록 역사여행>과 <스토리테마파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기 개발한 사행관련 정보사이트인 <사행록 역사여행>과 <스토리테마파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연구자는 물론 콘텐츠 제작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요에 부합되는 내용들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창작 기획 아이템에 맞는 맞춤형스토리 개발-제공의 형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기관에서 개발한 사이트이고, 분야가 중복되는 경우 연동[링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일부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행관련 테마의 경우 <스토리테마파크>의 사행관련 ‘스토리’를 <사행록 역사여행>에 통합하거나 연동되는 형태로 운영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콘텐츠기획, 제작, 실습분야의 학교교육

크>에서는 주로 사진자료가 서비스되고 있다. 연행콘텐츠 스토리소재의 내용에 부합하는 영상이미지(사진·동영상)의 확보를 통하여 이야기소재의 현실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헌해석만으로 얻기 어려운 정보를 사진, 동영상으로 보충할 수 있다면 원문의 해석이 더욱 풍부해지고 사실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8) 비슷한 경우지만, 연행록의 내용을 개발한 결과물인 <사행록 역사여행> 사이트에도 영상이미지들이 텍스트와 부합되어 잘 구현되어 있지만, 이 사이트의 영상자료(사진)들도 일부는 다시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몇몇 장소의 이미지들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9) 이와 관련해서는 『2013년 이야기 한국, 전통 창작소재 콘퍼런스 자료집』 참고. (<http://story.ugyo.net/front/2014/bbs/bbsView.do?currPage=1&listSize=10&searchType=titles&searchValu=&bbsCode=1001&bbsSeq=75>) 『2014인문정신과 전통창작소재 국제콘퍼런스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 자료집』 참고 (<http://story.ugyo.net/front/2014/bbs/bbsView.do?currPage=1&listSize=10&searchType=titles&searchValu=&bbsCode=1001&bbsSeq=107>)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몇 가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테마파크>의 ‘사행스토리’는 여전히 개발 가능한 소재들이 많다. 연행의 기간, 횡수, 인원수, 확인된 기록물의 국역작업, 미확인된 기록물의 발굴 작업이 시급하기도 하고, 연행노정 현장연구 역시 아직 부족하다. 한국, 북한, 중국의 학술조사, 협력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토리테마파크>의 주요 구성과 사행스토리 소재는 향후 사행문화 또는 연행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 활용에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 관련 공간, 인물, 사건을 활용하여 역사관광콘텐츠를 기획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V.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 기획 방안

##### 1. 병자호란 볼모노정의 관광자원적 요소

관광자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독특성, 고유성, 체험성, 역사성, 교육성, 유희성, 경관성, 상징성 등이다.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병자호란 볼모노정’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크게 역사성, 독특성, 체험성, 교육성 등 4가지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병자호란 볼모노정 공간의 역사성이다. 병자호란 볼모노정의 인문지리적 요소로는 무엇보다도 고대로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무대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슬한 이야기와 사연들을 품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공간의 특수성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볼모노정은 이 공간이 갖는 역사성 못지않게 한국, 북한, 중국지역에 이르는 지리공간적인 특수성이 존재한다. 또한 볼모노정의 국내구간인 의주대로는 조선의 대중국

정책의 영향에 따라 중국으로 연결되는 使行, 혹은 燕行路程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셋째, 역사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병자호란 불모노정 역시 역사성과, 문화, 자연학습이 가능한 역사문화탐방로로 체험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병자호란 불모노정은 국내는 물론 중국지역까지 연계되는 노정이므로 국내의 역사문화탐방로 개념을 중국노정까지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국내구간인 의주대로와 소현세자(강빈)가 병자호란을 겪어냈던 강화도, 남한산성, 궁궐과 같은 관련 공간은 체험형 역사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넷째, 역사공간으로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역사여행이 현장체험을 통하여 역사를 반추하고 교훈으로 삼고, 선양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병자호란 불모노정은 역사교훈여행, 선조선양사업의 대상으로서도 매우 적합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sup>60)</sup> 병자호란 불모노정과 공간적으로 겹치는 연행노정은 한중간의 문화적 접점이 빈번했던 문화교류의 통로이자 조선지식인들의 정신사적 공간이기도 했다. 소현세자의 불모노정 역시 연행노정의 큰 틀 위에 중첩되고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이다.

이밖에도 관광자원으로서 유희성, 경관성, 상징성 등의 특성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병자호란 불모노정(연행노정) 공간이다. 사신들의 연행록마다 동북지역의 요동일대가 우리민족의 고대강역이었음을 상징하는 민족적 정서와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자연은 조선의 산천을 닮아 친근감이 있고, 연도의 명산들이 모두 조선의 명산과 견줄 수 있는 자연지리 경관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의 요소로 빠지지 않는다.

소현세자(강빈)와 봉림대군 일행이 심양으로 향하던 불모노정은 한양

60) 병자호란 이후 심양에 잡혀간 삼학사가 순절한 후, 윤집의 후손인 남원윤 씨 문중에서 심양의 삼학사 행적과 유적(발해대학 삼학사비, 조선관터, 고궁 등)을 답사하고 선조를 선양하는 프로그램을 가진바 있다.

에서 심양까지 약 2달여에 가까운 기간을 청군의 철군일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숙박지도 대부분의 일정을 들판의 임시막사나 민가를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동간의 고초가 매우 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광콘텐츠 기획과정에서 답사동선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므로 제시한다.

[표 6] 병자호란 불모노정의 주요이동경로와 숙박지<sup>61)</sup>

| 구분         | 이동지역     | 숙박지   | 숙박일            | 비고              |              |
|------------|----------|-------|----------------|-----------------|--------------|
| 국내<br>남한지역 | 남한산성     |       |                | 인조, 청태종에게 항복    |              |
|            | 송파곶 강가   | 군영    | 1월30일<br>~2월2일 | 3일              |              |
|            | 서강창 뒷산   | 군영    | 2월3일           | 산비탈에 군영 설치      |              |
|            | 망원정 강가   | 군영    | 2월4일<br>~7일    | 4일              | 양화나루 근처      |
|            | 창릉       |       | 2월8일           | 임금과 창릉에서 이별     |              |
|            | 고양       | 별당    |                | 심양 불모 출발        |              |
|            | 파주 이천    | 인근    | 2월9일           | 파주 10리 지남       |              |
|            | 적성(임진강)  |       |                |                 |              |
| 장단 판부촌     | 민가       |       |                |                 |              |
| 국내<br>북한지역 | 장파곶      | 민가    | 2월19일          | 주방에 불이 남        |              |
|            | 봉산 창탄    |       | 2월20일          |                 |              |
|            | 봉산 남면 초부 | 시골집   | 2월21일<br>~3월2일 | 11일             |              |
|            | 황주 녹사촌   | 민가    | 3월3일           |                 |              |
|            | 중화       | 민가    | 3월4일           |                 |              |
|            | 평양 부산    | 교외    | 3월5일           |                 |              |
|            | 영유       | 민가    | 3월6일           | 13일             | 영유 서쪽 5리     |
|            | 안주 장평 야외 | 야영    | 3월20일          |                 | 안주성에서 15리 못감 |
|            | 박천 벽가정   | 민박    | 3월21일<br>~22일  | 2일              | 안주에서 30리 지남  |
|            | 가산 장곶    | 들판    | 3월23일          |                 | 납정청 5리 전     |
| 정주 별암      | 야영       | 3월24일 |                | 정주에서 10리 지남     |              |
| 정주 옥녀동     | 들판       | 3월25일 |                | 선천 입반에서 10리 못 감 |              |

61) 세자시강원의 『瀋陽日記』·『瀋陽狀啓』의 노정을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임.

| 구분             | 이동지역    | 숙박지 | 숙박일           | 비고              |
|----------------|---------|-----|---------------|-----------------|
| 국내<br>북한<br>지역 | 선천      |     |               |                 |
|                | 철산 판교   | 들판  | 3월26일         | 거연관 10리 지남      |
|                | 의주 고진강변 | 강변  | 3월27일         | 관아에서 40리 못 감    |
|                | 압록강 강변  | 아영  | 3월27일<br>~29일 | 2일              |
|                | 중강      | 들판  | 3월30일         |                 |
| 중국<br>지역       | 삼강-구련성  | 들판  | 4월1일          |                 |
|                | 탕참      | 들판  | 4월2일          |                 |
|                | 건천      | 들판  | 4월3일          |                 |
|                | 장항      | 넷가  | 4월4일          |                 |
|                | 연산관     | 들판  | 4월5일          | 5리 전            |
|                | 침수참     | 들판  | 4월6일          | 몇 리 지남          |
|                | 냉천      | 들판  | 4월7일          |                 |
|                | 난니포     | 들판  | 4월8일          |                 |
|                | 백담평     | 들판  | 4월9일          |                 |
|                | 심양강     | 동관  | 4월10일         | 사신접대 장소인 객관     |
|                | 심양      | 심양관 | 5월7일~         | 새 관소 옮김(8년간 생활) |

연행노정 공간과 병자호란 불모노정을 활용한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에서는 병자호란의 역사성을 상기하는 역사교훈적 요소와 연행노정이 갖는 해외체험, 문화체험적인 관광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기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 2.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의 방향

### 1) 답사 프로그램의 동선과 범위<sup>62)</sup>

병자호란 불모노정 역사관광콘텐츠(답사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몇

62) 병자호란 관광콘텐츠의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며, 후고를 통하여 프로그램과 함께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답사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연행노정이라는 틀 안에서 병자호란 불모노정을 살펴야 한다. 둘째, 역사적 사건(병자호란)과 그로인해 파생된 일련의 동선(불모노정)을 주요 기획의 축으로 삼는다. 셋째, 병자호란 관련 공간을 국내와 중국지역 모두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행적 역시 함께 조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답사지역의 동선을 살펴보면 국내지역의 경우 서울, 강화도, 남한산성, 의주대로이며, 중국지역은 압록강부터 심양, 그리고 심양에서 북경까지이다.<sup>63)</sup>

### 2) 답사 프로그램의 일정

답사의 동선을 전제로 일정을 구상하면, 국내지역 답사와 중국지역 답사를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sup>64)</sup> 국내지역의 경우, ①서울의 궁궐을 중심으로 전조초기의 궁궐상황과 피난상황에 대한 답사,<sup>65)</sup> ②강화도로 피난한 세자빈(강빈) 일행과 갑곶, 강화산성의 동선, ③남한산성 항전기간의 동선, ④삼전도 항복 후 임금의 궁궐 복귀 노정과 세자일행의 양화진 이동경로, ⑤창릉에서 임금과 작별 후 임진강 도강 동선, ⑥소현세자의 묘역(서삼릉)과 강빈의 묘역(광명 영회원), 궁궐에서의 거처지 동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동선은 지역권으로 묶거나 사건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지역의 경우, ① 압록강 도강 이후부터 심양까지의 동선(연행노정 참고), ② 심양에서의 활동 동선(고궁, 각 아문, 야관전 경작 등), ③ 서행 동선(산해관 전투 참전 및 북경입성 경로), ④ 소현세자의 연행동선(황제의 사냥 동행), ⑤ 북경에서의 동선(자금성, 천주당 등) 등으로 구분해 볼

63) 소현세자의 연행일기(사냥), 서행일기(종군) 노정은 논외로 삼는다.

64) 답사프로그램의 전체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춘호, 앞의 논문, 2014, pp.254-255. 참고.

65) 청군이 주둔한 양철평에서 피난에 나섰던 남대문, 광희문, 송파나루의 동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정은 국내지역과 중국지역 답사를 모두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야 병자호란의 역사성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답사일정은 1)항의 답사 동선과 범위를 연계해서 국내지역과 중국지역의 답사로 분리해서 실행해도 전체적인 의미부여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기획여부에 따라 축소, 확대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3) 답사 프로그램의 내용

답사프로그램의 내용은 1차적으로 소현세자와 김빈 일행, 조선피로인의 행적을 좇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들의 행적이 드러나는 지점들은 이미 앞서 밝힌 국내지역과 중국지역의 주요 동선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와 공간에 서려있는 스토리 소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3장에서 살펴본 <스토리테마파크>의 사행스토리과 병자호란 관련 스토리는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사행노정스토리과 병자호란 관련 스토리는 답사 동선(공간, 장소)과 부합되는 스토리를 발굴하여 적극 해설하고 이해를 돕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아래내용은 <사행, 타국을 걷는 길>(사행의 여정) 항목에 개발된 ‘소현세자, 원손을 청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며 마음 아파하다’라는 소재의 스토리이다. 소현세자가 심양에 볼모가 된지 막바지(1644년 7월 16일)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혼하강 변의 야관에서 세자가 원손과 헤어지던 상황의 참담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일기이다.

1644년 7월 16일, 원손(元孫) 일행이 출발하여 야관(野坂)에서 묵으셨다. 보양관 김욱(金旭)과 내관 김언겸(金彦謙)이 원손 일행을 모시고 돌아갔다.

7월 17일, 소현세자(昭顯世子)께서 인시(寅時: 새벽 3시~5시)에 야관에 가서 떠나는 원손을 전송하셨다. 인평대군도 따라가셨다. 빈객 이하 관리들이 모두 모시고 갔다. 소현세자께서 곤하(昆河) 가의 막사까지 가셨다. 막 떠날 때에 원

손께서 나오셔서 재신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리가 절을 하며 이별했다. 떠나고 남는 그 상황에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그 마음이 어떤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7월 18일, 원손 일행이 사하보(紗河堡)에 머물러 묵으셨다.

- <스토리테마파크>, 원전을 활용하여 개발한 스토리<sup>66)</sup>

당시 소현세자와 원손의 이별과정이 드러난 스토리 소재이지만, 당시 심양 조선관에서 생활했던 소현세자와 재신들, 그리고 볼모로 교대해야 했던 원손 등 당시 분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 4) 답사 프로그램의 대상과 특징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이내 잊혀 지게 마련이다. ‘연행노정 속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는 우리역사의 한 장면이자 600여 년간 지속되었던 연행노정, 그리고 그 길 안에 스며있는 병자호란과 소현세자, 조선백성의 포로생활과 이산, 이후의 사신들의 눈에 비친 기억 양상들이 혼재되어 투영된 옛길을 찾는 역사여행, 역사교훈여행이다.

1차적인 관광대상은 학생그룹과 후손그룹이다. 이는 역사+공간 현장 학습이자 선조선양의 의미가 요구되는 답사프로그램의 성격과 직접적으로 부합된다. 좀 더 확장 될 필요가 있는 대상그룹이라고 생각한다.

2차 대상은 일반/매니아그룹의 ‘테마역사여행’의 형태이다. 연행노정과 병자호란의 역사성을 참고하여 특정한 테마를 설정하고 떠나는 매니아그룹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다. 우리사회는 ‘역사대중화’의 이름으로 인문학, 문화산업 전반에서 ‘역사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이 미덕처럼 진행되고 있다. 관광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대장금(大長今)>은 드라마의 인기를 얻어 관광산업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친 바 있고 이는 ‘韓流’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답사프로그

66) <스토리테마파크> 스토리, ‘소현세자, 원손을 청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며 마음 아파하다’ ([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KSH\\_1167](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KSH_1167))

램을 수차례 기획했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기획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차 대상은 전문연구자 그룹을 위한 ‘학술조사 프로그램’이다. 이미 연행노정 학술조사는 역사학, 문학, 한문학, 미술사학, 지리학 등 많은 학문분과에서 학술조사 목적의 답사를 진행하고 학술적 성과를 내 왔다. 그러나 그 참여그룹은 매우 한정적이고 연구의 목적도 제각각이다. 문헌연구 외에도 현장연구는 질적연구 방법론에 속한다. 연행노정은 국내, 북한지역, 중국지역에 산재해 있다. 북한지역의 연행노정은 현장연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언제나 연구의 대상인 ‘현장’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학술조사 성격의 답사프로그램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치밀하게 기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기획의 성격에 따라 답사 참가자의 범위와 특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답사프로그램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략적으로 5단계의 답사 진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5단계 답사 진행절차>는 답사의 진행과정을 5가지의 방법론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다. 먼저 크게 <선행학습단계>, <본 답사단계>, <답사정리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의 성격에 맞도록 5차례 진행절차(과정)에 걸쳐 다양한 답사내용을 경험하게 한다. 5차례의 절차는 바로 <독서하기>-<강연듣기>-<영상보기>-<체험하기>-<기록하기>의 절차를 따르는 방식이다.<sup>67)</sup> 이러한 체계적인 답사진행절차를 통해 기획자의 답사프로그램 완성도와 답사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V. 결론을 대신하여

병자호란 이후 명의 멸망을 지켜봐야했고, 청의 입관 이후 증원의 지

67) <5단계 답사 진행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춘호, 앞의 논문, 2014, pp.248-252. 참고.

배를 공고히 해 온 청의 현실을 목도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청은 오랑캐로서의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된 지배체제를 다진 강력한 왕조로서 배워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중국 사행은 국가의 부름에 부응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을 터이다.

그러나 중국으로 향하는 사행 길이 외교사절의 왕래만 있었던 공간은 아니다. 한양에서 심양에 이르는 사행노정은 우리역사의 아픔이 쌓인 곳이다. 이미 고대로부터 이 길은 숭한 전쟁을 수행했던 전쟁 참전로, 백성들의 피난로였다.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이 그랬고, 몽고의 침입, 임진왜란 원군의 참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역시 그랬다. 본고는 역사교훈여행으로서 병자호란 불모노정과 연행노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기억하는 방법론으로서 역사관광콘텐츠 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병자호란 역사관광콘텐츠는 병자호란을 전후한 소현세자와 강변의 행적을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양-의주, 압록강-심양에 이르는 공간은 이미 對중국 사행의 기본노선의 일부였고, 청의 입관 후에는 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연행노정으로 확정된 공간이었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현세자의 중국내 행적의 일부가 연행노정의 동선 위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함께 조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동선은 병자호란이후 연행 길에 나선 사신들의 기록에서도 병자호란의 치욕을 상기하는 심정들과 소현세자의 심양조선관 생활에 대한 감회를 피력하고 있어 한양-심양구간의 ‘병자호란 불모노정’과 ‘연행노정’은 함께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관광프로그램은 후고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과 재앙, 전쟁의 현장을 찾아 그때의 역사를 상기하고 반성하고 치유하는 여행이 ‘역사교훈여행’, 즉 다크투어리즘이다. 병자호란 불모노정은 전쟁의 참화를 겪은 60여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오랑캐 땅으로 이동한 아픈 공간이다. 전쟁의 참상이나 재앙의 직접적인 공간은 조선의 산하였지만, 심양으로 향하는 이 길은 병자호란이후 수백 년 동안 조선

사신들의 사행기록에서 회자되었다. 조선 후기 정신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의 현장에 서면 과거를 회상해보기 마련이다. 아픈 과거를 반추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 병자호란 불모노정은 연행노정 역사의 한 시기와 시공간적으로 겹친다.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의 연행노정은 병자호란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연행노정과 그 길 위에 서려있는 병자호란의 기억들을 역사관광콘텐츠로 기획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參考 文獻>

□  
『國譯 燕行錄選集』, 민족문화추진회, 1976.  
『國譯 沈陽狀啓』 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소현세자, 이석호 역, 『沈陽日記』, 대양서적, 1975.

강 양, 「朝鮮前期朝明使行外交와 交通路 - '조선 사행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13.

권혁래 · 신춘호 · 김재웅 · 이석현, 「심하전투 서사의 문학지리학적 고찰 - 문학지도와 경관, 서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51권, 우리어문학회, 2015.

김경미, 「소현세자의 '청' 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김남윤, 「심양일기와 소현세자의 불모살이」, 『규장각』 29, 서울대규장각, 2006.

——, 「조선이 겪은 호란, 이역살이, 환향의 현실과 기억 - 소현세자빈 강씨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17호-특집, 역사학연구소, 2009.

김문식, 「소현세자의 분조와 외교활동」, 『문헌과 해석』 37호, 문헌과해석사, 2006.

김일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기 - 三學士傳과 三學士碑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3.

——, 「西北 武人이 기억하는 內子胡亂과 瀋陽 체험 - 『龍灣忠義八壯士傳』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김태준 · 이승수 · 김일환,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6.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의 병자호란 - 고난을 기억하는 방법」, 『국어국문학』 140호, 국어국문학회, 2005.

남미혜, 「병자호란기 조선被虜人의 胡地체험과 삶」, 『東洋古典研究』 32집, 동양고전학회, 2008.

남은경, 「심양일기연구 - 소현세자, 봉림대군의 심양체험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2집, 동양고전학회, 2005.

——, 「병자호란과 그 후의 기록」, 『심양장계』,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문화콘텐츠와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박정애, 『강빈 - 새로운 조선을 꿈꾼 여인』, 예담, 2006.

소재영외,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도서출판 박이정, 2004.

송미령, 「입관 전 청조의 심양관 통제양상」, 『명청사연구』 제30집, 명청사학회, 2008.

신영담(신춘호), 『오래된 기억의 옛 길, 연행노정』, 도서출판 예감, 2006.

신춘호, 「연행노정 영상기록물(사진·동영상)의 콘텐츠화 방안 연구 -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영상아카이브형 전자북' 출판 제안」, 한국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소현세자빈 강씨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고 - 광명시 영화원 역사주제공원, 강빈 야판전(姜嬪 野坂田) 조성 제안」, 『인문콘텐츠』 17, 인문콘텐츠학회, 2010.

——, 「燕行路程 영상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 한양(漢陽)~심양(沈陽)구간 영상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古地圖를 통해 본 義州大路 원형 복원 일고 - 고양~파주구간 영상기록 과정을 중심으로」, 『韓國古地圖研究』 제6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4.

——, 「'17C 역사소설 공간' 전자문화지도 구축 방안 시고」, 『글로벌문화콘

- 텐즈』 2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 이성형, 「燕行使들의 間文化的 體驗에 대한 認識 樣相 考察 - 壬亂 收拾期 喪葬禮와 文物 認識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3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 「연행시(燕行詩)에 나타난 “동팔참(東八站) 구간(區間)” 인식양상(認識 樣相) 고찰(考察) - 임란(壬亂) 수습기(收拾期)를 중심(中心)으로」, 『漢文學論集』 제35호, 근역한문학회, 2012.
- 이승수, 「조선 후기 연행 체험과 고토 인식 - 동팔참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 , 「한문학과 다큐멘터리의 점점 가능성 탐색」, 『한국한문학회연구』 제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 , 「연행로 중 료양(遼陽)-안산(鞍山)-광녕(廣寧)구간에 대한 인문지리적 검토」,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09.
- , 「연행로(燕行路)의 문명로적(文明路的) 위상 검토, 그 의의와 한계 - 17세기 초 유몽인(柳夢寅)의 산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4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조병로, 「역사가 발전하고 삶이 이동하는 공간」, 『문화재사랑』, 문화재청, 2011.
- 홍중선·백순철, 『연행가』, 신구문화사, 2005.
- 洪忠堂, 『老沈陽“高麗館”의 歷史眞實與遺址尋踪』, 2008.
- 최희수, 「Construction Plan of Digital Map for Story Theme Park - Based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Story Mate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media and Ubiquitous Engineering』 Vol.9, No.3, 2014.
- 한국국학진흥원 <사행록 역사여행> (<http://saheng.ugyo.net/user/museum>)
-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http://story.ugyo.net>)
- 한중연행노정답사연구회 (<http://cafe.daum.net/chinaview>)

### Abstract

*A Consideration on a Plan for Using the Historical & Cultural Contents in the Space of Yeonhaeng Nojeong(燕行路程) - Focusing on the Planning of 'Historic Tourism Contents of Byeongjaboran(丙子胡亂)' Using a Story of <Story Theme Park> / Shin Chum Ho\**

This study is the writing that seeks a planning method of historical & cultural contents using historical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lan this as historical & cultural contents by grasping the memory aspect related to Byeongjahoran(丙子胡亂), which is reflected in Yeonhaeng Nojeong(燕行路程), after examining abou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nd significance that Yeonhaeng Nojeong has as the historical space. The subjects of research is aimed to pay attention to Yeonhaeng Nojeong with a great value of utilizing an old road as the historical & cultural contents, to the memory of hostage journey in Byeongjahoran, which is projected in it, and to the Crown Prince So-Hyeon's trace.

As for a research method, the aim is to figure out the documents such as 『Simyangjanggye(瀋陽狀啓)』, 『Simyangilgi(瀋陽日記)』, which recorded the Crown Prince So-Hyeon's trace in Shenyang and the relevant contents focusing on 『Yeonhaengrok(燕行錄)』 following Byeongjahoran in order to grasp the hostage journey in Byeongjahoran. The aim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about geographical space by using the record photos, which explored the sites of the Yeonhaeng Nojeong(燕行路程) in Chinese region and of the hostage journey in Byeongjahoran(丙子胡亂), and GPS(coordinate and track) data in order to supplement the contents of the documentary materials. Especially, to utilize it as a material of creating historical & cultural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docu8888@daum.net

contents, it will inspect whether Yeonhaeng Nojeong has availability as a material of creating historical & cultural contents by analyzing a case of ‘Sahaeng(使行) story’ in <story theme park>, which is making classics(diaries) a story.

The reality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which is called Silhak(實學, practical science), is in a situation of being always demanded the excavation of a new content material. In this regard, the probability of the Yeonhaeng Nojeong contents as ‘Public Domain Story’ is thought to be very high. Considering this matter, even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is thought to be likely able to be reference in offering a clue to the possibility of planning diverse historical & cultural contents using the space of Yeonhaeng(燕行) culture and Yeonhaeng(燕行) journey.

**【Key words】** Yeonhaeng Nojeong(燕行路程), Story, Byeongjahoran(丙子胡亂), Crown Prince So-Hyeon(昭顯世子), Tourism, Historic Tourism Contents